

한·일어(韓·日語)의 ‘완료상(完了相)’에 관한 대조연구

- 모어간섭(母語干涉)의 영향을 중심으로 -

김혜연*

hy-kim333@hanmail.net

차례

- I. 서론
- II. 본론
 - 1. 시제와 상의 개념
 - 2. ‘완료상(完了相)’ 「-ている형」의 개념
 - 3. 소설문체에서의 ‘완료상(完了相)’ 「-ている형」 빈도
 - 4. 모어간섭에 의한 설문 실태조사 (총 121명)
- III. 결론

요지

本稿は、韓國の日本語學習者にとって大変難しいと指摘されている、‘完了相’を表す「-ている形」の重要性と理解度を調べ、今後の學習方法に新たな道を開く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そのために、まず韓國語と日本語テンスの違いとアスペクトの捉え方について調べ、‘完了相’についての概念を研究したうえで、言文一致運動直後の3編の小説、『浮雲』、『蒲団』、『春』の中から‘完了相’「-ている形」の占めている部分と韓國語譯の言葉遣いに現れる時相の差について調べた。また、それを基に母語干涉を受けた状態でのアンケート調査で現實の‘完了相’「-ている形」に対する理解度を調べた。

本稿でこの3編の小説を資料とした理由は当小説が言文一致運動直後、すなわち明治後期に書かれたものであり、その明治後期の小説に‘完了相’の「-ている形」がどのくらいの使用頻度を占めていたかを知っておくことで、現代仮名遣い文の小説にみられる‘完了相’調査の意義がみだせると考えるからである。また、今回のアンケート調査は母語の干涉をみるために、韓國人日本語學習者と日本人韓國語學習者の雙方に行った。その際、アンケートの各質問には母語の解釋を付加し、母語干涉の影響が強いほど、互いに學習目標言語が理解できていないと判断した。それは、第二言語に母國の影響があるほど兩言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カテゴリーは違ってくると考え、學習者がどのように兩言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を考えて言葉を學んでいるのかが解れば、今後の學習方法に一つの方向が見えてくる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今回の研究の結果をまとめると、韓国語と日本語は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面でお互いに全く同じではなく、また明治後期の小説で完了相「-ている形」が多く使われている反面、その韓国語譯に直譯が出来ないものが多かったことや、アンケート調査によって、兩語の答えの間違ひから完了相「-ている形」の學習難度が高いことが解った。しかし、韓國人の日本語學習者にはテンスとアスペクトとの問題点を初級の學習者に理解してもらうことに無理があり、せめて覚え書きの生じぬように教習せねばならない。そのため、いくつも例を挙げ説明して理解させるあるいは、初級段階だけでなく上級段階でもひきつづき教えるなどの方法があるが、とにかく教える際にしっかり韓国語と日本語のテンスとアスペクトの差について説明した上で學習させることが必要だという結論に至った。

키워드 : 시제(時制)와 상(相)의 이해차이, 완료상(-ている형), 모어간섭(母語干涉)

I. 서론

본 논문은 ‘相的 意味를 갖는 完了表現’을 뜻하는 ‘完了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일본어 학습자의 ‘完了相」-ている형」의 인식도를 알기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시상차이, 일본소설에서의 사용도와 한국어번역의 시제 사용방식을 분석하고, 설문지를 통한 현 학습자들의 인식도를 모어간섭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연구한 것이다.

한국인의 일본어학습 진도순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교재 한 권 중간쯤에서 동사를 학습하기 시작하는데, 「-ます형」부터 그 활용변화를 공부하다가 「-て형」을 익히고 「-ている형」을 학습하면서 모어간섭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공부하게 된다.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모어간섭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어 학습자에게 문법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제의 이해인데, 일본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고 시제가 단순한 것 때문에 쉽게 접근하다가 한국어로 직역할 수 없는 완료표현 중에서 「-た형」과 「-ている형」의 사용에서 많은 오용을 범하게 된다.

이것은 활용형을 외우는데 급급하여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활용형에 맞게 활용하려는데 「-ている형」문을 해석할 때는 처음에 「~어/아 있다」나 「~(하)고 있다」의 진행형 의미로 영어의 ‘~ing형」과 같은 해석으로 무조건 익혔다가 「-ている형」의 또 한 면인 한국어로는 과거시제 「~했다」라고 해석됨을 접하면서 「-た형」과 ‘完了相」-ている형」의 구별이 확실해지지 않다는 원인 때문이다.

그보다 더한 문제는 '과거'時制와 '완료'相의 의미구별이 안되어 혼돈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어를 토대로 배우는 한국인은 일본어에서 말하는 '완료'相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못한 채 「-た형」과 '完了相」 「-ている형」의 두 가지 時相을 접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석상의 문제이다.

한국어의 시제는 현재와 과거가 기본이며 진행형을 따로 쓰고 있지만 '完了'를 '~었~'으로 표현하여 '完了'의 의미로서의 진행형 형태가 따로 없고¹⁾ 일본어만큼 相의 의미를 강조하는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일본어의 완료표현의 해석에서도 초보자들에게는 「~했다」만을 사용하여 '完了相」 「-ている형」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 일본어 초보자들은 '完了'를 「~했다」로 해석하고 일본어에서 관용적으로 외운 문장이 아니면 모어간섭으로 '完了'를 「-た형」으로 해석하게 된다.²⁾

이런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한국에서 판매된 일본어문법교재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행형”이라고 불리는 「-ている형」을 계속적인 동작(進行), 狀態, 完了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교재가 動作과 狀態의 설명이 자세한 데에 비해 完了相의 설명이 매우 부족한 편이고 完了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서적을 찾아봐야 문법적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 完了相은 초급에서 취급할 것이 아닌 고급문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법교재의 기초부분에서 完了相의 「-ている형」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중·고급단계에서도 제대로 회화를 구사하지 못하는 일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초로 현 교습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살펴보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제대로 된 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방안을 제시하여 일본어학습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1) 이익섭·채원(2002),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pp. 275-278.
2) 본연구시 실시한 설문지 결과로 인해 파악된 내용임.

II. 본론

1. 시제와 상의 개념

1.1. 시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토 토요모리(伊藤豊守;1923)는 시제 Tense의 어원을 “라틴어의 ‘tempus’, 고대프랑스어의 ‘temps’에서 전환된 것으로, 「때, 시간」³⁾이란 뜻이다. 영어로 ‘때의 부사’를 ‘Temporal Adverb’라 하는데 이 temporal은 Tense와 같은 어원이다. 단, time과는 관계가 없고 time은 Anglo-Saxon에서 생긴 것으로 독일어 tide와 같은 어원이다.

영어에서 Tense라는 말은 문법에서만 사용한 언어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현재인지 미래인지 또는 과거인지에 따라 동사형이 변하는 그 변화를 ‘tense’라고 정의하였다.⁴⁾

이 Tense(시제)에 대해 한국어의 경우, 이익섭·채완(2002)은 시제(時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떤 행위나 사건이나 상태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일이 있다. 가령 ‘무얼 하고, 책을 읽는 행위가 ‘어제’인가 ‘지금’인가에 따라 ‘했니’와 ‘하니’, 또는 ‘읽었어’와 ‘읽어’로 각각 구별하여 표현하는데 이처럼 어떤 행위, 사건,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내 주는 문법범주를 時制(tense)라 한다.⁵⁾

한국에서의 시제범주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제범주에 대한 한국어학자의 주장 방향

연구자	한국어 시제 범주
유길준, 최광옥,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김윤경 등	과거, 현재, 미래
김석득, 안동환, 이남순, 이익섭, 임흥빈, 채완	과거, 현재

3) 일본어의 「時(toki)」의 한역.

4) 伊藤豊守(1923), 『テンスムードの講義』, 有精堂, p. 1.

Tense는 羅典語의 tempus 佛語의 temps より轉化したもので 「時」の意味である。英語で時の副詞を Temporal Adverb と云ふが此 temporal は Tense と同語原である。但、time とは關係が違ふ time は Anglo-Saxon 生れで獨逸語を御承知の方には云ふ迄もないが tide(潮) と同語原である。

5) 이익섭·채완(2002), 前掲書, p. 267

이처럼, 현대 한국어의 시제범주는 과거와 비과거, 즉, 현재시제와 과거시제의 두 시제로 보아야 한다.

일본어도 시제 범주가 한국어와 같아서, 미카미 아키라(三上章:1979)는 ‘시제란 자립형(소위 말하는 “종지형”)을 대표로 하면 「-る형」대 「-た형」을 다루는 카테고리(범주)이며 현재와 과거의 두 시제이다.’라고 하였다.⁶⁾

1.2. 상의 개념에 대해서

상(相:aspect)란 말은 본래 러시아어 ‘vid’의 번역어로 19세기부터 러시아어 및 슬라브諸語에서 논의되어온 동사의 문법범주로서 어떤 동작·작용을 나타내는 데 시제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료(perfective)와 미완료(imperfective)와의 구별을 하기 위해 처음 쓰인 말이다.

한국의 相에 대해서는, 특히, 이익섭·채완(2002)은 「~고 있다」와 「~어 오다(왔다)」를 각각 진행상(進行相)과 완료상(完了相)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해되는 일이 있지만, 「~고 있다」와 「~어 오다(왔다)」의 ‘있다, 오다’는 이른바 보조동사로서 순수히 시제나 상 표시의 기능을 가지는 형태들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여 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나타냈다.

일본어에서는 미카미(三上:1979)가 ‘アспект’에 대해 ‘동사를 나타내는 과정 스스로의 여러 상(相)’이라고 정의하였는데⁷⁾ 그 이전에 오쿠다 야스오(奥田靖雄:1978)가 「-る형」을 기본태(基本態), 「-ている형」을 접속태(接續態)라 부른 것을 스즈키 시게유키(鈴木重幸:1978)가 각각 완성상(完成相), 계속상(繼續相)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며, 다음과 같이 相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있다.

うごきにははじめと おわりがあります。そのあいだにつづいている部分があります。

また、おわった あとには 結果が のこります。このような うごきの すがたを あ

6) 三上章(1979), 『日本語の構文』, くろしお出版, p. 13

テンスというのは自立形(いわゆる終止形)を代表にして言うと、スル對シタを律するカテゴリーである。現在と過去との二時制である。

7) 三上章(1979), 前掲書, p. 13

アспектの方は動詞の表す過程自身の諸相である。

らわす ために **す**がた動詞があります。8)

또, 『國語學大辭典』⁹⁾에 의하면, ‘アスペクト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일정한 시점에서 어느 과정의 부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론적 카테고리(범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時制와 相의 개념을 비교·정리하면, 時制(tense)란 어떤 일의 발화시와 사건 발생시의 시간적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범주이며, 相(aspect)이란 어떤 일의 발화시와 사건 발생시가 시간적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 동안 이어져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형태론적인 범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음 3.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ている형」의 개념과 쓰임새를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2. ‘완료상(完了相)’ 「-ている형」의 개념

구도 마유미(工藤眞由美:1995)는 다음과 같이 ‘完了相(パーフェクト相)’을 정의하고 있다.¹⁰⁾

첫째, 발화시점(ST), 사건시점(ET)과는 다른 <설정시점>(RT)이 항상 있어야 한다.

둘째, 설정시점에 대해서 사건시점이 선행하는 점이 나타나 있고, 시제적 요소로서의 선행성(先行性)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단, 단순한 선행성이 아니라 선행해서 일어난 운동이 설정시점과 연결=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운동상태의 완성상과 함께 그 운동이 실현된 후의 효력도 복합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상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8) 鈴木重幸(1978:375), 『日本語文法・形態論』, 麥書房, p. 375

ここでいうすがたとは, ヨーロッパの文法論でいうアスペクトaspectをさす。

9) 『國語學大辭典』(1981), 東京堂出版, p. 15

10) 金水敏 外2人(2001), 前掲書, p. 37

a. 發話時点(ST), 出來事時点(ET)とは異なる<設定時点>(RT)が常にあること。

b. 設定時点にたいして出來事時点が先行することが表されていて, テンス的要素としての<先行性>を含んでいること。

c. しかし, 單なる<先行性>ではなく, 先行して起こった運動が設定時点との結びつき=関連性をもっていると捉えられていること。

つまり, 運動事態の<完成性>とともに, その運動が實現した後の<効力>も複合的に捉れるというアスペクト的要素を持っていること。

즉, '完了相'의 특징은 設定시에 대한 事件시의 '先行性', 운동을 '完成性'에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 設定시에 생길 '效力'의 인식이라는 삼각주로 판단된다.

또한 している/していた의 시제대립은 設定時와 發話時の 관계에서 성립하게 된다. 즉, 발화시점(ST)이 설정시점(RT)보다 선행되었다면 過去完了의 'していた', 설정시점(RT)과 발화시점(ST)이 같이 성립되었다면 現在完了의 'している', 설정시점(RT)이 발화시점(ST)보다 선행되었다면 未來完了의 'している'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1970)는 '完了相'에 대해서, 「-てある형」·「-ている형」은 「-た형」의 어떤 경우와 같이 동작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남아있는 일을 나타낸다. 또한, 동작이 이미 시작되어 지금현재에 행해져 있는 일을 나타낼 때도 있어서 전자를 존재태(存在態;상태)라고 하고, 후자를 진행태(進行態)라고 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다.¹¹⁾

또, 나라초(奈良朝: 710-784년)시대 이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たり형」·「-たる형」이 존재태(상태)로 쓰일 때는 구어로는 「-てある형」·「-てゐる형」 「-ておく형」에 해당되며 당시의 문서에 「-たり형」과 「-てあり형」이 따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たり형」과 「-てあり형」은 같은 것이고 이것이 현대에 와서 「-てある형」·「-ている형」으로 변형되어 상태가 됨을 입증하고 있다.¹²⁾

'完了相' 「-ている형」에 대한 연구로, 나카지마 후미오(中島文雄:1987)¹³⁾는 발언 순간에 완료된 일은 「-た형」로 표현하며, 「-ている형」의 특징에 대해서 「僕はもう予防注射をしている/彼は昨年、本を一冊出している」에서의 「-ている형」처럼 “동작주의 동작(타동사) 완료 후 생긴 상태 접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작 완료 후의 동작주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彼は50年前に英國に留學している」에서의 「-ている형」은 과거의 경험이며, 「明朝6時にはロンドンに着いている」에서의 「-ている형」은 미래에 있을 시각까지의 접촉완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본래부터 있어야 하는 것이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문의 경우, 「-た형」대신 「-ている형」형이 대신할 때가 있어도 「-ている형」은 일시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黒い目をした女の子」라는 문 대신 「黒い目をしている女の子」처럼 「-た형」을

11) 橋本進吉(1970), 『助詞・助動詞の研究』, 岩波書店, p. 349

「-てゐる」「-てある」は、「た」のある場合と同じく、動作が完了して、その結果が残っている事をあらわす。また、動作が既にはじまって今現に行はれつゝある事もある。前者を存在態又は存在時、後者を、進行態又は進行時といつて之を區別してゐる。

12) 橋本進吉(1970), 前掲書, p. 371

13) 中島文雄(1987), 『日本語の構造』, 岩波書店, p. 104

대신할 수 없고 「した」를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대신, 화장과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는 「化粧をしている女の人」도 「化粧をした女の人」도 자연스러운 문이 되는데, 이것은 「-ている형」이 완료뿐만이 아니라 완료 후의 상태의 계속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도미타 타카유키(富田隆行:1993)는 ‘完了相’과 매우 혼돈하기 쉬운 「あの男の子は大きな目をしています」라는 주제로 ‘狀態’가 ‘完了相’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⁴⁾

‘狀態’란 進行이 더 이상 안 되어 그러한 결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뜻하는데, ‘完了相’이 과거의 어떤 작용이 현재에도 계속 이어져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경우와 과거에 일어난 작용이 현재 이전에 이미 끝난 상태인 경우를 나타내는데 비해, 큰 눈을 갖은 남자 아이는 그런 변화를 갖고 눈이 커진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눈이 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狀態’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친 새를 고쳐서 완치된 후에 「あの時の鳥、もう直っていますか」라고 물을 경우의 ‘もう直っていますか’는 ‘完了相’의 경우이다. 어떤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狀態’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습이 이미 끝난 결과로 다른 상태로 변한 사실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동사의 「している」은 여러 경우에 맞추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미타(富田:1993)는 만약에 야구경기 등을 보러가려는데 비가 와서 못한 다음 날에 「昨日、行きましたか」란 질문을 받았을 때, 「昨日は雨が降ったので、行きませんでした」와 「昨日は雨が降っていたので、行きませんでした」의 둘 중 어느 쪽으로 대답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자의 「昨日は雨が降ったので」와 후자의 「昨日は雨が降っていたので」은 둘 다 ‘비가 내렸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틈만 나면 가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아서 경기장에 못 갔거나 아침부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비가(계속)내려서 못 갔다’는 시간동안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비교한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자.¹⁵⁾

(3) 先生 夕べの地震は大きかったですね。

14) 富田隆行(1993), 『日本人の知らない日本語』, 市井社, pp. 44-47의 내용에서 발췌 요약.

15) 富田隆行(1993), 前掲書, p. 92

みなさんは地震があった時、何をしていましたか。

- 生徒1 わたしはお風呂に入っていました。
 生徒2 わたしは勉強をしていました。
 生徒3 わたしは音楽をきいていました。
 生徒4 わたしは寝ていました。

(4) 先生 それで、あなたたちはそれからどうしましたか。

- 生徒1 すぐお風呂から出ました。
 生徒2 わたしはすぐ机の下へもぐりました。
 生徒3 わたしは慌てて外へ飛び出しました。
 生徒4 わたしはすぐ起きて、電氣スタンドをつけました。

완료시제인 「-ました」와 「-ていました」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예는 경찰 드라마나 추리소설에서의 진술이나 시간차 표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실제예문을 들어보자.

첫 번째 예문은 경찰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는 경찰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 사건현장에서 시체를 여기저기 살피고 있던 한 부하형사가 마침 나타난 보스 형사에게 시체를 감싸던 흰 천을 살짝 걷어 시체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시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5) 被害者は死んでいます。

여기서 '피해자가 죽었다'고 표현한 동사 '죽었다'의 부분을 '死んでいます'로 표현한 것은 죽음은 끝이고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는 완료이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지금의 상태가 죽음을 완료했고, 죽은지는 얼마 안 된 時相을 뜻한다.'라는 점에서 '死んでいます'를 사용한 예이다.

두 번째 예는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의 소설 『미안마의 수금(ビルマの堅琴)』(1985)을 영화화한 것으로, 전쟁이 끝남을 알리러 간 주인공 미시마(三島)가 행방을 감추자 동료군인들이 수색하다가 미안마의 한 노파에게 미시마를 보았냐는 질문을 하고 그 노파는,

(6) 死にました。

라고 일본어 단어 한마디를 내뱉는다.

이것은 미시마를 열심히 찾았는데 찾기 이전에 그것도 오래 전에 미시마가 죽었을 경우라서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현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 먼 과거시제인 ‘死にました’를 사용한 예이다.

정리하자면, 현재시제인 ‘死にます(죽습니다)’는 앞으로 죽을 각오(‘미래’의 계획)를 표현하거나 모든 생물은 죽는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死んでいます(죽었습니다)’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죽은 시점이 현재와 가까울 경우에 사용된다.

그리고 과거시제로서, ‘死にました(죽었습니다)’는 오래 전에 죽어서 현재와는 무관한 시점에 죽은 경우에 사용되며, ‘死んでいました(죽었습니다)’는 과거의 어떤 기간 동안 이루어진 동작·작용의 경우에 사용되어 “(내가 발견당시에는) 이미 죽었었어요.”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다.

完了 意味를 갖는 동사에서 주의할 점은 「-ている형」은 직역이 아닌 “~했다”로, 「-ていた형」도 직역이 아닌 “~했었다”로 둘 다 과거시제로 의역한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동사 “죽다”는 “~어/하고 있다”라는 시제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는 동사로 어떤 동작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선택한 단어 성격에 맞는 조건을 묘사하기 위해 「-る형」·「-ている형」·「-た형」·「-ていた형」의 4時相 중에서 그 상황을 묘사한 동사의 의미가 어느 시제범위에서 표현이 되는지 문장의 전체를 읽어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야만 일본어를 오용 없이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소설문체에서의 ‘완료상(完了相)’ 「-ている형」 빈도

에도(江戸:1603-1868)시대 후기의 서민위주 문학의 영향을 받아 메이지(明治:1868-1912)시대를 계기로 일어난 계몽활동 가운데 언문일치운동을 통해 그간의 딱딱하기만 했던 문어체에서 벗어나 평명성(平明性) 즉, 통속적이며 쉽고 명쾌한 구어체를 선호하게 된다. 새로운 문체의 특징은 이 외에도 세밀한 묘사와 객관적 묘사, 속어, 구독법의 확립과 개성적이라는 것이 그 조건이었다.¹⁶⁾

실제로,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뜬구름(浮雲)』을 살펴보면 통속적이며 짧고 평명성 있는 구어문체에 세밀하고 객관적인 묘사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속어

16) 山本正秀(1965), 『近代文体發生の史的研究』, 岩波書店, pp. 6-10의 내용에서 발췌 요약.

를 사용하여 서민에게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하여 본래 일본어에는 없는 물음표(?)와 느낌표(!) 등의 부호로 감정표현을 넣어 이야기를 읽기 쉽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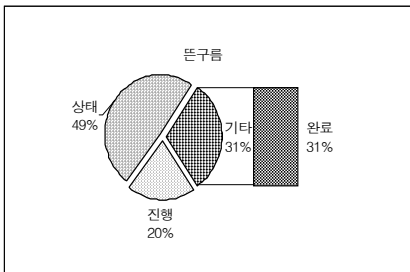
이러한 언문일치체의 문체는 개성적인 문체를 강조하던 자연주의문학이 1909-1910년 사이에 부흥하면서 같이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언문일치체=개성적인 문장'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일본최초로 현대어로 소설의 문체를 표기한 것 중에서 1886년에 나온 최초의 언문일치소설인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뜨구름(浮雲)』과 언문일치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자연주의소설의 시초인 다이아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団)』,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봄(春)』의 3권을 참고로 하여 「-ている 형」이 처음 문단에 나왔을 때의 사용도와 표현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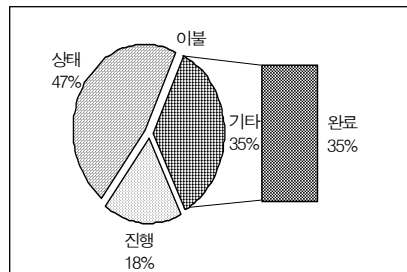
우선, 동작·작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 「-ている 형」을 '進行相', 동작이 없는 동사의 진행(상태유지)이거나 추상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형용사적인 의미로 문의 명사를 형용하거나 그 모습을 주관적인 눈으로 묘사한 것을 모두 '狀態相', 이미 이전에 끝난 동작을 추억하며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모습이나 했던 동작의 설명을 다시 현재에 객관적인 느낌으로 설명한 것을 '完了相'으로 나누었다.

이 나눈 것을 기점으로 「-ている 형」표기를 모두 찾아 그 중에서 '完了相' 「-ている 형」의 빈도수를 뽑아내고 그 3권의 '完了相' 「-ている 형」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하고 있다」, 「~어/아 있다」, 「~했다」에서 어느 해석이 더 많은지를 분석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이해도에 접근하고자 한다.¹⁷⁾

<그림 1> 『浮雲』의 「-ている 형」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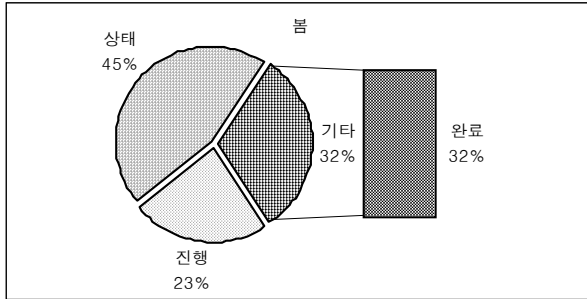


<그림 2> 『蒲団』의 「-ている 형」 분포도



17) 시대가 1886-1910년의 소설이만큼 현대어와의 문법적 틈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기서 조사한 「-ている 형」은 고대일본어의 相보다는 현대일본어의 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春』의 「-ている형」분포도



3권의 책에서 「-ている형」표기에서 ‘完了相’을 분석한 결과, 『 뜬구름(浮雲)』은 514개 중에 169개로 31%, 『이불(蒲団)』은 213개중에 75개로 35%, 『봄(春)』은 무려 806개중에 254개로 32%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30%이상의 ‘完了相’ 「-ている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휘를 사용할 때마다 일본어가 時相의 「-る형」 「-ている형」 「-た형」 「-ていた형」으로 사건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반면, 한국어는 현재형과 과거형에 「~던」 「~느라고」 등과 같은 사건상황을 나타내는 말을 붙여 時相을 표현하는 점에서 번역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선행논문에서 이주용(2002)은 번역문을 분석하는데 일본어에서는 동사라 할지라도 그의 번역에 쓰이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져 활용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났다, 다르다, 어렵다」와 같은 형용사는 「~았~」 「~었~」을 붙여 과거를 표현할 수는 있어도 진행의 「~어/아 있다」와 「~하고 있다」 형태로 만들어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생기는 혼돈의 원인을 모어간섭에 두어 모어간섭을 받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모어간섭을 받게 하도록 만든 설문지로 실제 모어간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하였다.

4. 모어간섭에 의한 설문 실태조사(총 121명)

제임스(James:1980)의 연구에서¹⁸⁾, 모어와 제2언어가 많이 유사할 경우에 모어전이(母語轉移)가 최대로 발생하고 학습 작업 중에 ‘중립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 轉移가 줄어든

다고 밝히고 있어 모어와 제2언어가 유사성을 가진 외국어와 그와 반대로 차이점이 많은 외국어의 학습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잭슨(Jackson:1981)의 연구¹⁹⁾에서도 두 언어 간에 상당항목이나 구조가 상당히 다를 경우에는 轉移가 일어나지 않고 많이 유사하거나 약간만 다를 경우에 전이가 일어난다고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어서 모어와 제2언어 간의 유사성이 있을 경우 모어간섭이 심하게 일어남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지의 형태는 두 가지로, 일본어 설문지는 일본어학습자 총 80명으로 외국어 고등학생 3학년생 40명과 외국어 학원생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모어간섭 하에 조사·비교했고, 한국어설문지는 한국인 교습자 11명에게서 실시하여 얻은 설문지의 정답을 토대로, 한국어학습자 중 총 30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모어간섭 하에 조사한 다음, 일본어설문지와 한국어설문지로 각각 일본어의 '完了相'과 한국어의 완료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분석하였다.

4.1.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완료상(完了相)' 「-ている형」의 이해도

설문지의 형태는 총 20문항으로 앞서 설명한 두 대상에게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문장마다 일본어로 「-る형」과 「-ている형」과 「-た형」을 답으로 주며 문의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일본어문장 밑에 「했다」 「한+N」등 과거시제로 한국어해석문을 써놓아 모어간섭 하에 일본어문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한국어 과거시제의 혼돈과 '完了相' 「-ている형」의 이해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4> 서울시내 일본어 설문지답 비교도



18) 森山新(2000), 『認知と第二言語習得』, 계명출판사, p. 86 「表14 母語の干渉を引き起こす條件についての研究一覽」에서 발췌.
 19) 森山新(2000), 前掲書, p. 86 同表에서 발췌.

통계내용을 분석하면, 총20문항 중 1번의 「-る형」으로 답이 많았던 문제가 4문항, 2번의 「-ている형」으로 답이 많았던 문제가 6문항, 3번의 「-た형」으로 답이 많았던 문제가 10문항으로, 일본어표현에서의 ‘完了相’을 「-ている형」이 아닌 「-た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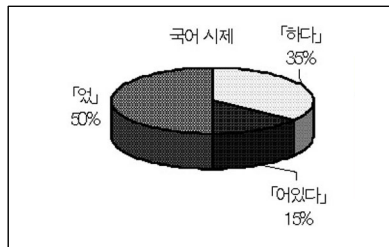
이것은 설문지 일본어문항마다 문제 밑에 한국어로 동사는 과거시제 해석을 달았고 형용사는 현재형으로 해석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해석의 시제만 <그림 4> 서울시 일본어설문지답 비교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모어간섭 하에 오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동사문의 완료 이해도

설문지의 대상은 서울시 K대학의 국제관에서 한국어 초급을 막 끝낸 실력을 소유하고 있는 2, 30대 일본인 30명으로, 5.1에서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에게 실시한 설문지문에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문제 밑에 일본어문을 써서 모어간섭을 받게 한 상태로 한국어의 완료시제의 이해도를 비교·분석하였다.²⁰⁾

설문지의 형태는 총 20문항으로 두 대상이 같은 내용의 설문이며 문장마다 한국어로 「~다형」과 「~어 있다형」과 「~었/았다형」을 답으로 주며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일본인 설문지의 경우만 한국어문장 밑에 일본어로 ‘完了相」 「-ている형」의 해석을 써놓아 모어간섭 하에 한국어문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完了相」 「-ている형」의 혼돈과 한국어 완료시제의 이해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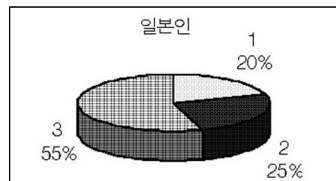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어의 시상 범주의 한 예



20) 일본인 설문에 앞서 국어교육 전공자와 한국어 교육전공자인 한국인 교습자 총 11명에게 일본인에게 실시할 한국어 설문지 내용에서 일본어 해석을 삭제하여 한국어문을 완성하게 하여 교습자들의 정답을 토대로 일본인에게 실시한 설문지의 답과 비교·분석하였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狀態'나 동작의 '完了'를 표현할 때, 한국어의 時相에서 「~었~」을 선택한 경우가 50%, 「~는~」과 「~하다」와 같은 현재형을 선택한 경우가 35%로, 과거시제는 「~었~」형으로 익힌 경우가 많은 데 비해, '狀態相'이나 '完了相'의 문을 「~어 있다」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겨우 15%밖에 되지 않아 완료시제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설문지를 통해 일본인의 대답은 완료시제로 「~었~」형의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30명 중 55%를 차지하였고 설문지의 20문항 중 정답개수가 16개(80%), 오답개수가 겨우 4개(20%)라는 결과가 나왔다(<그림 6>참조).

<그림 6> 일본인의 설문지답 분포도



이것은 한국이라는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점과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시제 수가 적어 현재형과 과거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고 모어간섭을 받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으로,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선행연구, 근대초기소설 3권의 표기와 그의 번역, 학습자들의 세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본어의 조동사로서 時相을 대표되는 '完了相' 「-ている형」의 역사사와 일본 언문일치 초기에 어느 정도 '完了相' 「-ている형」이 사용되고 어떻게 한역되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학습자의 이해도를 설문지로 조사하여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完了相' 「-ている형」의 필요도와 앞으로의 지도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내용을 분석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연구결과로 알아낸 사실인데, 다음과 같이 나누어보았다.

첫째, 일본어는 시제와 상의 관계가 뚜렷한 데 비해, 한국어는 시제에 대한 개념만 뚜렷할 뿐, 상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즉, 한국어동사는 상을 무시하여 과거와 비과거의 2시제만으로 미래, 현재, 과거, 대과거의 4시제 표현에 대응하는데 비해 일본어동사는 표면상으로 현재와 과거의 2시제지만 「-る형」 「-ている형」 「-た형」 「-ていた형」의 4時制範疇와 ‘進行相’, ‘狀態相’, ‘完了相’의 3相이 겹쳐 時相的 意味에서 동사서술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초급단계의 일본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인에게 이해시키기란 매우 난감하다.

둘째, 여러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ている형」을 時相的 意味에서 파악하거나 동사분류를 하여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時相的 意味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어왔지만, 동사의 의미성격으로 3相을 단어에 따라 의미를 분류하여 문장에서 「動詞+ている형」부분만 꺼내서 기억하기보다 문 전체의 상황에서 시간적인 폭(새로운 시간)을 제대로 파악해야 3相을 이해하기 쉽다고 이번 연구결과로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어는 여전히 문어체와 구어체가 대다수 분리된데 비해 일본어는 언문일치체의 시도가 빨랐고 언문일치를 최초로 시도한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 뜰구름(浮雲)』²¹⁾에서도 무려 전체의 30%이상(약 170개) 되는 ‘完了相」 「-ている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언어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변천하여 서적의 문체를 통해 ‘完了相」 「-ている형」이 매우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어학습에 있어서 이해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번 번역물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한국어에서 「~(하)고 있다」 「~아/어 있다」와 「~했다」는 같은 완료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에서 자연스런 한국어의 흐름에 따라 두 가지 형을 써서 표현되는데 정확히 일본어의 ‘完了相」 「-ている형」의 번역이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번역자는 내용흐름에 맞게 하는 데에 급급하여 시제가 일관되지 않아 원어작품에서 보여주는 時相으로 인한 작품의 효과를 무시하거나 번역자체가 생략되어 있어서 번역서 참조에 한계를 느껴야했다.

다섯째, 한국인에게 실시한 일본어설문지의 분석결과, 한국인의 경우 ‘完了相」 「-ている형」에 대한 인식이 겨우 30~35%였고, 답안지를 보면 일본어문 바로 밑에 있는 한국어해석에 의한 모어간섭의 영향으로 대답에 「-た형」이 많아 ‘完了相」 「-ている형」에 대

21) 二葉亭四迷(1941), 『浮雲』, 岩波書店.

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어를 학습하는 외국어고교학생보다 단기간에 일본어를 학습하는 사설학원학생의 성적이 더 좋았지만 문제전체를 보았을 때 일본어 표현이 어려운 만큼 모어간섭을 심하게 받아 모어와 비슷한 부분만을 익히거나 어려운 부분을 무조건 기계식 암기에 의존하여 한국어식 문을 만들거나 기억한 부분만 잘 푸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해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한국인에게 실시한 설문지의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한국어질문 밑에 일본어로 '完了相' 「-ている 형」의 해석을 써놓아 모어간섭 하에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한국어학습자에게 정답자가 80%가 넘는 결과가 나왔고, 정답자가 많은 원인으로 설문지에 응답해준 일본인이 한국에 거주중이고, 한국어의 시제가 상을 무시하여 대표적으로 과거와 비과거의 두 개를 기준하기 때문에 모어간섭을 받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일곱째,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ている 형」은 「-て형+보조동사」로 설명되고 있지만, 일본어학에서는 '助動詞'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어문법교재에서 이와 같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현 교육현황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방안을 위한 개선점에 관해서다.

이번 설문조사 과정에서 한국인 몇 강사는 '完了相' 「-ている 형」에 대해 강사자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이에 대한 설명지도가 확실히 부족해서 한국인학생들의 설문지 응답에서 정답이 적은 결과가 생긴 원인을 알 수 있었는데,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이번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첫째,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어교재에서도 '完了相' 「-ている 형」의 설명이 매우 부족하고, 사설학원의 경우 일본인원어민강사나 일본유학의 경험이 있는 한국인 강사의 경우 반드시 일본어학전공자만이 사설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어학전공자나 강의경력자라 할지라도 '完了相' 「-ている 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두 개 정도의 예문만 설명한 다음 「-て형+보조동사」의 형태로 생각하여 다른 「-て형+보조동사」의 설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時相的 意味에서 「-ている 형」과 같이 일본인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단어와 말하고 싶은 상황에 맞게 時相을 선택하여 말을 하는 것은 우선 일본인들이 간결하고 단순한 문을 선호한다는 점과 긴 말을 하지 않고도 표현하고 싶어서 언어의 형태적 특징을 이

용하여 전달하고자 하여 말을 짧게 전달해도 무리가 없도록 이미 생활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동사와 같은 단어의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있는 매력보다 명사구나 형용사구처럼 한 단어에 추상적 의미를 내포하게 하여 동사를 한층 더 매력적으로 설명해주는 「-ている형」과 같은 助動詞의 특징이 일본어에서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많은 助動詞를 확실하게 구별하여 익히지 않으면 오용분석을 강조하여 잘못된 점만 지적해서 오용도가 높은 단어만 기억하게 되어 문에서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본어학습자들의 언어학습에서의 이해도가 저하되면서 회화나 작문을 학습할 경우나 언어사용에 있어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어강의를 맡은 교습자는 반드시 이 ‘完了相」 「-ている형」의 예문을 時制範疇 4가지와 相範疇 3가지에 맞추어 정확히 설명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이해시키거나 고급과정에서 ‘完了相」 「-ている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完了相」 「-ている형」에 대한 교습자 자신의 정확한 이해와 학습자들에게 많은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일본인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실제적이고 자연스런 일본어회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법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일본인의 일상회화에 가깝도록 회화에 필요한 표현 속에 포함된 문화적 개념을 함께 인식시켜서 ‘完了相」 「-ている형」을 이해하게 만들어서 언어사용에서의 이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서적·논문>

이익섭·채완(2002)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p.267, pp.275-278

이주용(2002) 日本語動詞文의 時制研究 -韓國語와의 對照的 觀點에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39

伊藤豊守(1923) 『テンスムードの講義』, 有精堂. p.1

金水敏·工藤眞由美·沼田善子(2000) 『日本語の文法2時・否定と取り立て』, 岩波書店.

- 『國語學大辭典』(1981), 東京堂出版. p.15
砂川有里子・駒田聰・下田美津子・鈴木あかつき・筒井佐代・蓮沼昭子・ベケシューア
ンドレイ・森本順子(1998) 『日本語文型辭典』, くろしお出版. p.37
鈴木重幸(1978) 『教育文庫3 日本語文法・形態論』, 麥書房. p.375
富田隆行(1993) 『日本人の知らない日本語』, 市井社. pp. 44-47, p.92
中島文雄(1987) 『日本語の構造 -英語との對比-』, 岩波書店. p.104
橋本進吉(1970) 『助詞・助動詞の研究』, 岩波書店. p.349, p.371
三上章(1979) 『日本語の構文』, くろしお出版. p.13
森山新(2000) 『認知と第二言語習得』, 계명출판사. p.86
山本正秀(1965) 『近代文体發生の史的研究』, 岩波書店. pp.6-10

<단행본>

- 김영심 옮김(2003), 후타바테이 시메이 지음, 『뜯구름』, 보고사.
노영희 옮김(2000), 시마자키 도손 지음, 『봄』, 小花.
오경 옮김(1998), 다야마 가타이 지음, 『이불』, 小花.
島崎籐村(2000), 『春』, 新潮社.
田山花袋(1987), 『蒲団』, 新潮社.
二葉亭四迷(1941), 『浮雲』, 岩波書店.